

가람 이병기 생애 · 문학세계 재조명

전주문화재단, 9일 한벽문화관 경업당서 탄생 130주년 기념 작고 작가 세미나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전주 백인의 자화상 10년 차를 맞아 9일 오후 3시 한벽문화관 경업당에서 가람 이병기 탄생 130주년 기념 작고 작가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주독서대전'과 협력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탄생 130주년을 맞은 한글 수호 운동가이자 시조 시인인 가람 이병기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자리다.

가람 이병기 시조 '별'에 곡을 붙인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박태건 시인의 발제가 이어진다. 발제에서는 전북 문단의 스승이자 한글운동과 국어연구에 쏟아부으며,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계몽 운동을 펼친 가람 이병기의 삶과 문화 세계를 조명한다.

다음으로는 제9회 가람 이병기 학술논문상을 받은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문신 작가와 고산문화대상·가람시조문학상을 받은 이송희 작가, 가람 이병기 친손자 이원배 씨가 토론자로 참여해 '가람 이병기와 전주', '가람 이병기의 삶과 문학'에 관한



가람 이병기 탄생 130주년 기념 웹 포스터. /정은성 기자

한편, 전주문화재단 '전주 백인의 자화상'은 전주를 연고로 활약한 원로·작고 문화 예술인의 숭고한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2021년의 선정 예술인(문학 분야 - 故 이병기, 음악 분야 - 故 이정태, 미술 분야 - 방의걸, 국악 분야 - 전태준)을 포함해 총 70인의 아카이빙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아카이빙 결과물을 모아 '전주예술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정경 팀장은 "가람 이병기 선생의 탄생 130주년을 맞아 한글 수호 운동에 헌신한 이병기 선생님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한글 날 진행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전북문단의 큰 스승인 이병기 선생님을 재조명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장참여는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http://jbook.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30일까지 청년봉공센터서 'STARthings' 전시회 개최

그림과 창작활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의 모임 '별것들:Shining Stars'(이하 '별것들')가 전시 'STARthings'를 개최한다.

(재)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잇수 Issue'에 선정된 소모임인 '별것들'이 4일~30일 4주 간 청년봉공센터에서 프로젝트 발표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동희, 신애림, 황정현, 조영경이 함께 구성한 소모임 '별것들'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STAR / START / THING의 주제로 새로 시작하거나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한편의 동화 같은 디지털 드로잉들을 선보인다.

새로 단장한 청년봉공센터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별것들'의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던 '초면이지만 행복하세요'에서 제작했던 엽서의 이미지와 작가들의 다양한 캐릭터 일러스트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아 진행된다.

소모임 '별것들'의 신애림 대표는 "이번 사업과 전시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됐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작품으로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활동으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잇수 Issue' 사업은 도내 청년들이 주체가 돼 지역



내 이슈, 환경 등을 문화예술로 풀어내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개 소모임이 선정돼 전시회, 영상 제작, 책자발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2)과 청년 소모임 '별것들' 담당자(010-6423-4394)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마이스 팸투어 · 설명회 개최

마이스 회의 시설 · 지원제도 소개 · 지역 관광자원 등 홍보

전북도와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7일~8일 양일 간 '2021 전라북도 마이스(MICE) 팸투어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마이스산업 관련 주요 단체, 기관, 인사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회의 시설, 마이스 지원제도 및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30명의 도내의 마이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팸투어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설명회를 통해 전라북도 마이스 회의 시설

및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회의 시설인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왕의지빌과 태권도원 등을 방문한다.

또한 전북관광브랜드공인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 관람 및 한옥마을 투어를 통해 전라북도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팸투어는 향후 전라북도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전라북도와 재단은 대한민국 광역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육성체계를 마련 중이다"며, "특히 전라북도 미래·뿌리산업과 연계 할 수 있는 행사와 도내 14개 시·군이 가진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마이스 행사'를 적극 발굴·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지난 7월 전라북도 마이스 전담 기구인 '전북마이스뷰로'를 신설해 ▲마이스 관련 기관 교류, ▲국제회의의 발굴 및 유치, ▲마이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22일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공연

김제시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를 선보인다.

은퇴 후 집에서 홀로 감자를 돌보는 60대 가장 영호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40대 셀러리맨 중수, 자식농사 잘 짓고 노후 걱정 없이 사는 말복, 늦은 나이에 손자를 봐야 하는 갱년기 여성 영자, 세월이 가도 사랑받고 사는 예쁜 은정, 사춘기 자녀와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미경이 짙짙방에 모여 삶의 애환과 고민을 털어놓는 드라마 형식의 유쾌한 극으로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살어 말어? 도장 찍고 싶을 때 꼭 봐야 하는 연극'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중년의 인생을 유쾌하고 솔직하게 풀어헤려 연극을 넘어 부부, 커플의 관계를 회복 시켜주는 힐링 연극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개그맨 이용렬이 영호역을 드라마 '박태혁은 영애씨'에서 영애 엄마로 열연한 김청하 배우가 영자 역을 맡고 있고, 특별히 성우 인지환이 연극무대로 돌아와 중수 역을 맡아 열연할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2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선착순 판매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방역 강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체험과 수련을 비롯한 여행·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한다.

7일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과 노철수

노봉조합자부장, 태권도원 운영관리(주) 서필환 대표이사, 코로나19 대응 TF팀 등이 함께하는 태권도원 시설 방역을 했다. 태권도원 방문객들의 많이 찾는 도약센터 로비와 복도, 수련실 등 공용 공간에 대해 연무 방역과 손잡이

소독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방역은 최근 태권도원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고 태권도 수련활동이 진행되는 등 기존 방역활동을 지속하면서도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오응환 이사장의 의지를 담았다.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는 코로나 대응 TF팀을 최근 신설하고 태권도원 방문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원 입구 종합안내소에서 T1경리장과 태권도 시범공연을 관람하는 T1공연장, 국립태권도박물관, 체험관YAP, 순환버스와 모노레일, 전망대 등 동선을 고려한 방역 활동과 방역 횡수 증가, 손잡이 등에 대한 소독과 환기 등을 지속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방심이나 양보없이 최선을 다한 방역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태권도원 방문객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오응환 이사장 등이 태권도원 도약센터 로비에서 분무 방역과 손 달는 부분에 대해 소독을 하고 있다. /우주=전문선 기자

진안문화원, '옛 지도로 진안 읽기' 고지도전 개최

진안군 진안문화원(원장 우덕희)은 진안군민의 삶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고지도(古地圖)전을 오는 18일까지 '진안문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진안군 고지도전은 '옛 지도로 진안 읽기'라는 주제로 열리며 진안군 최초로 전시회를 갖

게 돼 의미가 크다.

앞서 5일에는 전북문화원 연합회장(나종우)을 비롯해 전북 14개 시군 문화원장, 문화원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 전시되는 진안지역 고지도는 세계고지도 1점, 전국지도 1점, 전라도지도 2점, 진안 및 용담현지도 등 총 24점이 전시된다. 특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로 진안현과 용담현과 관련돼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고지도 위주로 전시가 된다.

우덕희 진안문화원장은 "한국 고지도는 중화를 내세우던 중국인들도 조선 지도의 훌륭함을 인정할 정도였다"며 "우리 민족 특유의 지도 제작 기술이 잘 표현된 옛 지도를 통하여 우리 고장 진안군민의 삶의 자취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군민 누구나 관람하여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해주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 16일 '뚝딱하니 용궁' 무료공연

군산시는 어린이공연장에서 어린이 마당놀이 뮤지컬 '뚝딱하니 용궁'을 오는 16일 11시와 14시에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뚝딱하니 용궁'은 정래동화 별주부전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체험형 뮤지컬로 새롭게 각색한 공연으로, 관객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 도깨비 시리즈 '뚝딱하니 용궁'의 두 번째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연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동행자의 한칸 띄워 앉기로 운영되고, 공연 당일에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문부 작성 등 방역에 철저를 다 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무료로 7일 10시부터 시 통합예약시스템(www.gunsan.go.kr/event)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린이공연장(454-5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작업복
단체복

여성기업

관측물
기념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안전화
안전용품

명찰, 로고
각종 인쇄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대표전화 063)227-4610 N A V E R 은혜상사(주)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